

한국여성단체연합소식

• 한국여성단체연합소식(격월간) • 발행일 | 2000년 6월2일 • 등록 | 서울마02626 • 발행인 | 지하은희 최신헌수 리오경숙 • 편집인 | 남윤인순 • 발행처 | 사단법인한국여성단체연합 • 전화 | 02-2273-9535~8 • 팩스 | 02-2273-9539
 •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2층(100-391) • Internet : www.women21.or.kr • E-mail : KWAU@chollan.net •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 KWAU • 유니텔 : S4KWAU • 편집·제작 | 그래픽시선 02-732-7902



여성마당

- 02 방송법내 시청자 권리와 단체의 역할

여성정책해설

- 05 여성부, 무엇이 두려운가.
 08 제16대 총선 당선자 여성정책 서약서

더불어 가는 여성운동

- 14 미스코리아대회를 폭파하는 보통 여성들

- 11 여성연합소식
 30 회원단체소식

여성운동정보

- 16 4·13 총선 활동 평가 및 향후 연대운동의 진로
 19 여성건강의 개념과 여성주의적 관점
 22 제408차 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성명서
 23 (주)삼부커뮤니케이션즈는 부당해고한 43세 이상 여성, 70명을 즉각 복직하라.
 24 경기보조원 집단 폭행사건에 대한 성명서
 26 캐디의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에 대한 항의 성명서
 28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여성들의 건의문

- 52 활동일지·행사안내
 54 회원단체연락처 / 회원단체부설기관연락처



사단
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방송법내 시청자 권리와 단체의 역할

리오경숙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시청자의 권리란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그대로 현실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근본적 정신을 살리고자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다. 시청자관련단체에서는 법의 정신을 충실히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나 방송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 정보를 나누고 여론을 형성하는 미디어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4의 권력으로 표현되는 언론미디어는 우리들의 삶과 떼어 수 없는 관계로 얽혀 있다. 단순히 생활의 재미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미디어는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가장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순기능을 가진 반면 철저한 상업성으로 치장된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역기능적 요소도 있다. 특히 미디어에 대한 적응문화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요소들이 무절제한 청소년층을 자극한 결과 유희미디어와 그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편 다채널 다미디어 현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다채널이 상호경쟁을 하면서 수용자들의 취향에 맞고 이익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과,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많아지면서 수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져 수용자주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수용자 주권이 요구되는 배경에는 거대해져만 가는 방송의 위상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증가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방송의 대변인으로서의 기능상실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수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기술적 무기를 갖게 되었다는 점인데 이런 기술환경의 변화가 기존 공중파방송들의 역할에 위협을 가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시청자를 단순한 상품소비자로 보는 입장은 다채널 다미디어 시대에 방송시청자에 대한 인